

## 독일의 문화유산 보호정책과 통일 후 복원사업

안두순,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독일에서 기념문화재는 '다중적 기억'과 연관된 유형 문화재를 말한다. 기념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형태, 사회적 맥락, 역사적 연계성, 공동체적 특성, 경제적 관계성 및 기능적 독창성 등이 모두 고려된다.

독일의 기념문화재 보호 정책은 1990년 통일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이외에도 기념문화재 보호자 연합(Vereinigung der Landesdenkmalpfleger)과 독일기념문화재보호재단(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과 같은 민간단체들이 기념문화재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방치하면 결국 소멸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물사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독일에서의 기념문화재 보호 사업은 통일 후 매우 활발해졌는데, 이는 동독 지역에 소실이나 붕괴 위험에 처한 유물과 유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일 후 대표적 사업으로 드레스덴 도시 재건사업, 베를린 성 복원사업, 그리고 마리엔본 독일분단 추모관 건립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독일의 통일 후 문화통합 노력과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6년 4월

## 1. 독일 내 기념문화재의 개념과 보호법 체계

문화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의는 없다. 본 글에서는 독일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은 유형의 유물과 유적에 국한하여 ‘기념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실 독일에서도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논의에서 가능하면 모든 기념물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대세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념물이고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없다.<sup>1</sup>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중적 기억(kollektives Gedächtnis)’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독일에서는 대체로 7 가지의 개념이 ‘기념문화재’에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즉, 민족적 정체성, 국수주의, 기억과 기념, 역사의식, 순수성, 전통, 그리고 신화와의 관련성이다.

---

독일에서는 대체로 7 가지의 개념이 ‘기념문화재’에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즉, 민족적 정체성, 국수주의, 기억과 기념, 역사의식, 순수성, 전통, 그리고 신화와의 관련성이다.<sup>2</sup> 이처럼 다양한 개념과의 관련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 기념문화재 보호는 단지 구조물의 유지나 보수를 위한 기술적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광의적으로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가치평가 및 접근전략 사이의 사회적 관심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독일에서 기념문화재 보호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법치국가 독일에서도 기념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의 역사는 길지 않다. 관련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1902년 6월 헤센-다름슈타트에서였다. 이를 기초로 2차 대전이 끝난 1949년 6월 바덴을 시작으로 1980년까지 서독지역의 각 주가 기념문화재보호법(Denkmalschutzgesetz)을 제정하면서 독일의 현대적 내용을 담은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동독에서는 1975년 6월에 문화재관리법(Denkmalpflegegesetz)이 제정되었으나, 기념문화재보호를 각 주정부가 주관하도록 했던 서독과 달리 중앙정부가 주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서독에서 기념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구축된 이면에는 유럽 연합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이는 구 동독이 관련법을 제정한 1975년이 유럽 기념문화유산 보호의 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sup>3</sup>

서로 분리되어 있던 양독의 관련 법체계는 1990년 통일과 함께 동독 지역의 5개 신 연방주가 연방공화국 체제에 맞게 주 단위의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통합되었다.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구도시도 보호 대상으로서 기념문화재에

포함된다. 하지만 구도시가 하나의 보호 대상 기념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형태, 사회적 계층, 인접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구조물이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단지 구조물들의 집합만이 아닌, 사회적 특성, 경제적 관계성 및 기능적 독창성 등이 모두 고려된다.<sup>4</sup> 기념문화재 보호는 공공의 기념물이 될 만한 대상의 재고조사, 목록화, 선별적 선택, 물질적 유산의 유지와 기록을 하는 제도라고 해석된다.

독일에서 기념문화재 보호 관련 정책 담당 공식 기구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문화부와 지자체이다. 그 중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각 주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 연구, 계획수립 및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주별 기념문화재 보호자 연합(Vereinigung der Landesdenkmalpfleger)이다.

이 기관은 독일 각 주의 기념물 보호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합체이다. 연구, 조정 및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이 단체는 1951년 문화부장관회의 산하에 결성되었다. 독일 전역의 도시재정비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는 이 기관은 16개 주 문화부장관회의의 위임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며, 그 산하의 개별 부서들은 전문 영역의 문제 해결과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관의 전문가적 의사결정은 주정부 차원을 넘어서 연방 전역에 적용된다.

기념문화재 보호자 연합의 목적은 도시와 마을 구조, 지역중심 및 개별 문화재가 가지는 조형적 가치를 넘어 공간이 가지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호, 계승 및 발전에 있다. 특히 ‘기념물 보호(Die Denkmalpflege)’라 불리는 전문지는 현안들과 함께 학술적인 논문들도 실려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Dehio’라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독일 예술문화재 소책자의 공동발행인이기도 하다.

---

기념문화재 보호자 연합의 목적은 도시와 마을 구조, 지역중심 및 개별 문화재가 가지는 조형적 가치를 넘어 공간이 가지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호, 계승 및 발전에 있다.

---

## 【 2. 독일기념문화재보호재단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

기념문화재 보호자 연합이 준공공의 성격을 가진 정책수행 기관이라면 독일기념문화재보호재단(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설 재단이다. ‘우리는 문화를 기반으로 건

독일기념문화재 보호재단은 1985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설립되어 20만 이상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4,500 건 이상의 사장 또는 붕괴 위험에 처한 기념문화재를 유지, 보수하였는데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총 5억 유로(약 7천2백억 원)를 상회한다.

설한다'는 표어 아래 독일에서 가장 큰 문화유산 관련 시민단체로 성장한 이 재단은 공공재원조달이 충분하지 못한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

### 1) 조직의 기능과 특성

독일기념문화재 보호재단은 1985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설립되어 20만 이상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4,500 건 이상의 사장 또는 붕괴 위험에 처한 기념문화재를 유지, 보수하였는데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총 5억 유로(약 7천2백억 원)를 상회한다. 이 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기구로, 200,000명 이상의 후원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4,500건 이상의 기념물 유지보수를 지원했으며, 이에 5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독일연방대통령은 이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기념문화재 보호재단은 문화재의 유지 보수 외에 다양한 교육 사업과 진흥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국 기념문화재의 날 기획과 조정
- 기념문화재 참여 및 기념물 보호를 위한 청소년 오두막집 (Jugendbauhütten) 등의 학교 교육프로그램 진행
- 기념문화재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교육사업
- 명예직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의 이상의 지역이사회를 통한 활동영역 확대

독일기념문화재 보호재단의 활동이 특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이 통일을 맞은 1990년 이후부터이다. 구 동독지역에는 화급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냥 두면 영원히 다시는 보존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문화재들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었다. 통일이 되면서 서독지역의 엄청난 누적과제에 추가된 구 동독 지역의 기념문화유산 유지보수와 복원 과제를 정부나 지자체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재단은 수많은 유지보수와 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 2) 기념물보호를 위한 청소년 오두막집

젊은 세대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에 본 재단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념문화재의 유지 보수, 복원 등의 지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기념문화재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며 참여에 바탕을 둔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재단이 탄생시킨 ‘청소년 오두막집’ 사업은 1년 동안의 기념문화유산 보존 자원봉사 행사이다. 중세기 오두막집의 전통과 연결시킨 이 자원봉사 활동은 현장감 있는 경험과 함께 일차적인 직업 및 개인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6~26세의 청소년들은 1년의 체험기간 동안 수공업과 건설업체의 건축 설계나 기획, 또는 문화재 관리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는다. 실무 외에 강의와 토론을 통해 양식과 재료, 연구 및 작업공법, 문화유산 보존의 기초 및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배운다. 설사 다른 분야 직장으로 진출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 역사, 문화, 예술 및 공예기법 등에 대한 지식으로 교양 있는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 13개의 청소년 오두막집이 운영 중이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기념문화재 보호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방,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 또는 여타 지원으로 충당한다.

## 3) 문화유산 교육사업 지원

본 재단의 ‘역동적 기념문화재-문화유산으로부터 배운다’ 사업은 청소년들을 문화유산 보호 현장에 참여시켜 그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학교지원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역사를 설명하고 문화유적이 일상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100년 전 내가 사는 지역의 모습은 어떠했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일하는 방식은 어땠을까? 역사적 사건의 현장들이 인간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어떻게 훼손되거나 변질되었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면서 청소년들의 기념문화재 보호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필요한 교재를 개발

---

젊은 세대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에 본 재단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념문화재의 유지 보수, 복원 등의 지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기념문화재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

---

기념문화재 아카데미는 2001년 당초 별도의 공익 단체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2년 초부터 재단 산하의 한 부설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아카데미의 과제는 건축설계사, 도시계획전문가, 마을 개발자, 해당 공무원 등 문화재 보존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직업훈련 및 계속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

하며 지식을 심화시키는 등 학교 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즉,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유형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본 재단과 협력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과 안내를 받는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이 주어지며, 여기서 핵심은 생활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발견, 궁금증 해소 및 연구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중등과정, 그리고 직업적 계속훈련 및 연계훈련 학생들이다. 개별 학교는 물론 3-6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매년 3월-5월 사이에 공모를 통해서 참석 대상을 모집하며, 이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되면 한 학년 당 약 2,000 유로가 지원된다.

#### 4) 기념문화재 아카데미

기념문화재 아카데미는 2001년 당초 별도의 공익 단체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2년 초부터 재단 산하의 한 부설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아카데미의 과제는 건축설계사, 도시계획전문가, 마을 개발자, 해당 공무원 등 문화재 보존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직업훈련 및 계속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외에 명예직, 소유권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유형문화재 보존 관련 정보 제공과 문화재 관리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유권자, 전문가, 강사, 일반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대화도 촉진한다.

기념문화재의 보수에는 수많은 도전이 뒤따른다. 전문 기능인과 건설업자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책이 있나? 소유주의 입장에서 유물유적을 보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수리가 끝난 다음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아카데미의 주요 과제이다.

이 아카데미의 활동 중에는 특히 직업적 계속훈련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훈련과 계속훈련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여기 해당되는 직업의 종류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축 및 설계 관련 직업
-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관련 직업
- 유형문화재 관리 및 보호 관련 직업
- 수공업 분야 기능인과 수선 관련 직업

이러한 작업훈련과 전문가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외에 소유권자, 이용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주요대상으로는 소유자, 건설업자 및 이용자, 문화재 보존에 활동하는 명예직 인사, 지역의 향토사학자, 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경력 단절자 또는 계속훈련 희망자 등이 포함된다.

### 【 3. 통일 후 기념문화재 사업의 대표적 사례 】

독일에서의 기념문화재 보호 사업은 특히 통일 후 매우 활발해졌다. 동독의 여러 지역에 소실이나 붕괴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소실된 유물과 유적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드레스덴 시 재건사업, 베를린 성 복원사업, 그리고 마리아엔브 독일분단 추모관 사업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기념 문화재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1) 드레스덴 도시 재건사업과 프라우엔 교회 복원

통일 후 기념 문화유산 복원의 대표적 사례로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와 신시장 지역 재개발이 꼽힌다. 천년 고도 드레스덴은 2015년 6월 현재 무려 9315 건에 달하는 기념 문화재와 발굴 유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8개 지역이 전통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도시이다.

1800년을 전후해서 드레스덴의 신시장은 당시로서는 유럽 최고 수준의 시민사회 도시가 완성되어 그 모습이 전쟁 전까지 유지되다가 1945년 2월 13과 14일 밤사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신시장의 중심에는 프라우엔 교회가 있었다. 이미 11세기

---

독일에서의 기념문화재 보호 사업은 특히 통일 후 매우 활발해졌다. 동독의 여러 지역에 소실이나 붕괴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소실된 유물과 유적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

에 마을 성당으로 출발한 이 교회는 드레스덴 시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오던 천주교회였으나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회가 되었다. 18세기에 돌을 가진 바로크 스타일로 새로 지어진 이 교회는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드레스덴의 대표적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격으로 화염에 휩싸이면서 이 교회는 1945년 2월 15일 붕괴의 운명을 맞았다. 이로써 신시장과 함께 드레스덴이 발하던 문화적 광채의 역사는 비극적인 막을 내리는 듯 했다.

전쟁 후 붕괴 잔해를 치우자 역사적 유산인 이 교회는 계단 탑과 성가대석 일부만 남아있었다. 동독시절 몇몇 유물들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신시장은 계속 방치되었고, 1980년대 중반 한 때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공식적 통일 이전인 1990년 2월 한 시민단체가 프라우엔 교회 복원을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가면서 신시장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1억8천만 유로에 달하는 총 복원 비용의 3분의 2가 모금되자 나머지는 드레스덴 시,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1994년 초석이 놓여진 이후 10년이 지난 2005년 10월 완공되었다.

프라우엔 교회의 복원을 시발점으로 드레스덴의 중심인 신시장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2002년 독일연방과 주정부 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15년 동안 ‘도시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비로 4천2백3십만 유로를 마찬가지로 드레스덴 시,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다. 현재 전체 사업의 채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드레스덴은 벌써 옛 광채를 거의 다 찾아가고 있다.

## 2) 베를린 성 복원사업

1442년 건축된 베를린 성은 1702년 바로크 스타일로 확장되고 1881년부터 독일 제국의 황궁이 되었던, 베를린의 대표적 건축물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인 1921년부터는 황궁 박물관으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들이 입주하고 대중을 위한 공연들도 이루어졌다.

당초 1442년 건축된 베를린 성은 1702년 바로크 스타일로 확장되고 1881년부터 독일 제국의 황궁이 되었던, 베를린의 대표적 건축물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인 1921년부터는 황궁 박물관으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들이 입주하고 대중을 위한 공연들도 이루어졌다.

미술사적으로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바로크 건축으로 평가되던 베를린 성은 호된 운명의 질곡을 맞게 되었다. 1950년 제 3차 동독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완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차 대전 때 많은 전화를 입었으나 기본 골격은 거의 완전하던 이 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마르크스-엔겔스 광장을 조성했는데 거세던 세계적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행한 만행이었다. 1973년부터 또 다시 이 자리에 현대적 양식의 공화국 궁전을 건축하였으나, 이 또한 통일 후 2006년과 2009년 사이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베를린 성의 복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알프스 이 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바로크 건축물의 미학적 가치, 지역적 및 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감안할 때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결국 복원이 결정되었다. 2013년 6월 12일 초석을 시작으로 베를린 성은 재설계된 회랑과 건물뼈대를 기초로 하여 본래의 자리에 원형대로 복원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9월 14일 개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전체 비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방 건설부장관은 5억5천2백만 유로를 연방정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고했고, 베를린 시는 3천2백만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의 일부는 베를린 성의 완공으로 전시실로 유물을 옮기게 될 몇몇 박물관 소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하고, 기존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 복원 사업에서처럼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8천만 유로의 기부를 기대하고 있다. 바로크 회랑의 복원은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 3) 마리엔본 독일분단 추모관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동서독 분단시절 양독 간 가장 많은 물동량은 서독의 헬름슈테트 통제소와 동독의 마리엔본 통제본부를 거쳐서 움직였다. 이 구간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여서 동독 방문 서독인들이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 관문은 서독에서 동독을 통해 폴란드나 여타 동구권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동독은 마리엔본 통제본부에서 하노버-베를린 간의 고속도로와 브라운슈바이크-막테부르크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이동을 통제했다. 1984년과 1989년 사이 여기에서 처리된 승용차만 천만대, 그리고 화물 트럭이 약 5백만 대에 이른다. 당초 잠정적으로 생각해서 소규모 건물이었던 동독의 마리엔본 접경통제시설은 1972년과 1974년 사이 무려 35 헥타르에 달하는 접경통제본부로 확대되었다. 기다란 담벼락이 높여지고 여러 개의 감시탑이 높게 설치되었다.

이곳은 단지 여권과 통관 검사를 위한 시설이 아니었다. 국경경비대

---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동서독 분단시절 양독 간 가장 많은 물동량은 서독의 헬름슈테트 통제소와 동독의 마리엔본 통제본부를 거쳐서 움직였다. 이 구간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여서 동독 방문 서독인들이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

와 국가보위부 공무원 등 총 1,000명 정도의 인력이 이 지역에 상주하였고 모든 건물들은 지하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그러나 그 시설의 전체 규모나 지하통로의 존재 자체가 매우 제한된 인사들에게만 알려졌고 동독 군인들이 같이 주둔하고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9시 15분에 어린 딸을 동반한 동독의 한 여인이 처음으로 헬름슈테트-마리엔본 사이의 동서독 접경 초소를 통과하여 서독으로 넘어왔다. 동독 정부의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동독의 새로운 여행 통제 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날, 서독 땅을 밟은 첫 번째 사례를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이로부터 몇 달이 지나 동서독 간의 경제통화통합에 관한 조약 발효 하루 전인 1990년 6월 30일 접경통제소는 폐쇄됨으로써 45년 동안의 생명을 마쳤다.

통일 후 작센-안할트 주정부 주도하에 이 접경통제소를 기념 역사 유물로 지정하여 작업을 진행한 끝에 1996년 8월 13일 과거 동독의 가장 큰 접경통제소가 있던 광활한 대지에 마리엔본 독일분단 추모관이 개장되었다.<sup>5</sup> 이곳은 1945-1989년 분단 기간 동안 양독 간 국경선을 넘으려다 소련군, 동독 비밀경찰, 그리고 동독 경비병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기념유적이다.

이 추모관에서는 이념대립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활용된 통제시스템의 잔재들과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며 다양한 기획전도 열리고 있다.

## [ 4. 맺음말 ]

많은 문화유산들은 방치하면 결국 소멸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물사관에 얽매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공공부문은 물론 사설 재단과 시민단체, 다양한 메세나 운동, 개인들의 명예직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가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에는 절대적이다.

많은 문화유산들은 방치하면 결국 소멸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물사관에 얽매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공공부문은 물론 사설 재단과 시민단체, 다양한 메세나 운동, 개인들의 명예직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가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에는 절대적이다.

독일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기념문화재’는 민족적 정체성, 국수주의, 기억과 기념, 역사의식, 순수성, 전통, 그리고 신화와의 관련성 등을 가진 유형 구조물이다. 그러나 기념문화재 보호사업이 단지 구조물의 유지나 보수를 위한 기술적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적 정체

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가치평가 및 접근전략 사이의 사회적 관심영역인 동시에 학교 및 시민교육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정설이 되었다.

독일의 기념문화재 보호 사업은 특히 통일 후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동독의 여러 지역에 소실이나 붕괴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소실된 유물과 유적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통일은 찾아올 것이다. 독일의 기념문화재 보호, 유지보수 및 복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시사점으로 다가올 날을 기대해 본다.

## |후주|

- 1) Klaus von Beyme.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Von der Staatsförderung zur Kreativwirtschaft. Wiesbaden 2012. p. 240
- 2) Michael S Falser. Zwischen Identität und Authentizität. Zur politischen Geschichte der Denkmalpflege in Deutschland. Dresden 2008, p. 11
- 3) Ernst-Rainer Hönes.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städtebaulichen Denkmalpflege: Vereinigung der Landesdenkmalpfleg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ndbuch Städtebauliche Denkmalpflege. Berichte zur Forschung und Praxis der Denkmalpflege in Deutschland. Petersberg 2013, p.115-144
- 4) Tilmann Bauer. StadtDenkmal und Landdenkmal als Grenzbegriffe der Baudenkmale: Schöner Kunde. 1982, p. 265  
Thomas Gunzelmann. Inventarisierung und räumliche Strukturen am Beispiel des Inventars Bamberg: B. Frank u. G. Dolff-Bonekämper. Sozialer Raum und Denkmalinventar. Dresden 2008. p. 36-44
- 5) Martin Kaule. Relikte der Staatssicherheit. Bauliche Hinterlassenschaften des MfS. Berlin 2014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스벤 슈베어젠스키, 김태현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정범구 (가나다 순)

주소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6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